No. 3 공시·이벤트 읽는 시간 7분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왜 떨어질까?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는데 주가는 왜 내려갈까요? 희석과 할인 발행, 자금 사용 목적을 가상의 회사로 계산해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늘어난 주식 수 이상으로 이익이 늘어날지가 관건

확인할 숫자

증자 비율, 발행가 할인율, 자금조달의 목적



사진: 여러 조각으로 나뉜 피자, igorovsyannykov, Wikimedia Commons.

목차

1. 유상증자는 무엇이고, 무상증자와 무엇이 다를까?
2. 주식 수가 늘면 한 주의 몫은 얼마나 줄어들까?
3. 새 주식을 싸게 팔면 주가는 왜 미리 내려갈까?
4. 조달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왜 중요할까?
5. 기존 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6. 유상증자 공시를 봤을 때 던질 세 가지 질문

> 이 글의 회사와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보유 종목에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떴다는 알림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한 분도 많을 겁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렇다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왜 떨어질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상의 회사 J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01

유상증자는 무엇이고, 무상증자와 무엇이 다를까?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파는 일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서 갚을 의무가 없고 이자도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자금 조달 방법인 셈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무상증자는 다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쌓아 둔 잉여금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 주는 일입니다. 회사로 새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가상의 회사 J로 보겠습니다. J의 주식은 100만 주, 주가는 10,000원이라 시가총액은 100억 원입니다. 지난해 순이익은 10억 원이었습니다. J가 새 주식 25만 주를 한 주에 8,000원씩 팔기로 했다면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20억 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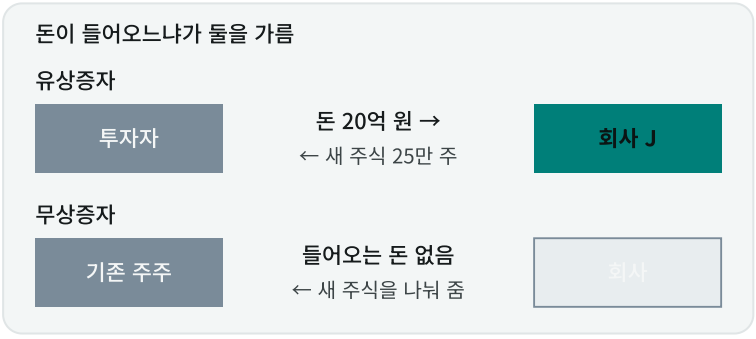


그림 1. 가상의 회사 J. 유상증자는 회사로 돈이 들어오고, 무상증자는 들어오는 돈 없이 주식만 늘어남을 나타낸 개념도.

새 주식을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방식도 나뉩니다.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일반공모, 정해진 투자자에게 파는 제3자배정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점은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02

주식 수가 늘면 한 주의 몫은 얼마나 줄어들까?

회사의 이익은 주식 수대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그대로인데 주식만 늘어나면 한 주에 돌아가는 몫이 작아집니다. 이를 희석(주식 수가 늘어 한 주의 가치나 지분율이 묽어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J의 순이익 10억 원을 증자 전 주식 100만 주로 나누면 주당순이익(EPS,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은 1,000원입니다. 증자 뒤 주식은 125만 주가 됩니다. 순이익이 그대로 10억 원이라면 주당순이익은 800원으로 내려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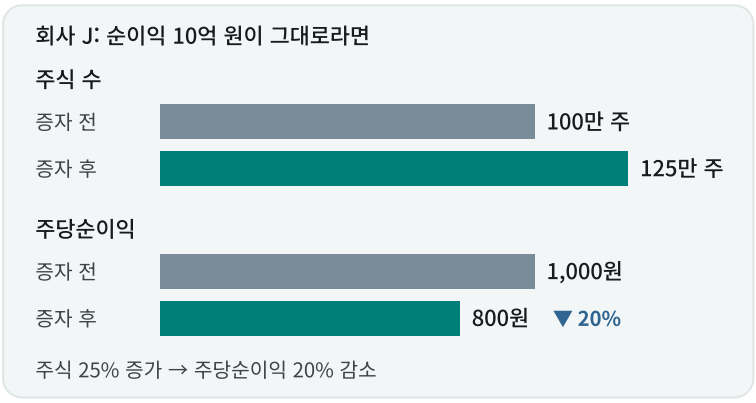


그림 2. 가상의 회사 J(순이익 10억 원 유지 가정). 막대 길이는 각 묶음 안에서 값에 비례함.

주식은 25% 늘었는데 한 주의 몫은 20% 줄었습니다. 비율이 다른 것은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100만 주에서 25만 주가 늘면 25%이고, 1,000원에서 200원이 줄면 20%입니다.

지분율도 같이 줄어듭니다. J 주식 1만 주를 가진 주주의 지분율은 1%였습니다. 새 주식을 사지 않으면 1만 주 ÷ 125만 주, 즉 0.8%로 내려갑니다. 가진 주식은 그대로인데 몫만 줄었습니다.

03

새 주식을 싸게 팔면 주가는 왜 미리 내려갈까?

두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새 주식은 보통 지금 주가보다 싸게 발행됩니다. 비싸게 내놓으면 사려는 사람이 적어 돈을 다 모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깎아 주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J는 10,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에 새로 팔기로 했습니다. 할인율 20%입니다. 기존 주식 100만 주와 새 주식 25만 주의 비율은 4 대 1입니다. 1만 원짜리 물건 네 개와 8천 원짜리 물건 한 개를 한 바구니에 담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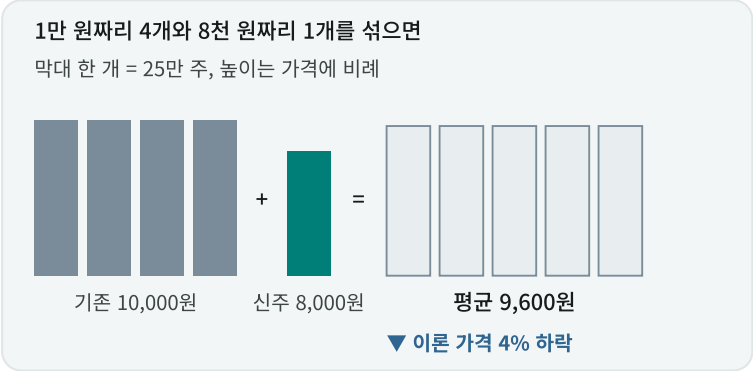


그림 3. 가상의 회사 J. 막대 높이는 가격에 비례하며, 이론 가격은 (100억 원 + 20억 원) ÷ 125만 주로 계산함. 실제 주가는 수급과 전망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음.

바구니 전체 값은 48,000원이고 물건은 다섯 개입니다. 한 개당 평균은 9,600원입니다. J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00억 원에 새로 들어온 20억 원을 더하면 120억 원이고, 이를 125만 주로 나누면 한 주에 9,600원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에서는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권리락일)에 이렇게 계산한 가격 근처로 기준 주가를 낮춰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오면 시장은 이 4% 하락을 미리 반영하려 합니다. 할인율이 클수록, 새 주식이 많을수록 이론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04

조달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왜 중요할까?

그렇다면 유상증자는 늘 나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계산은 순이익이 10억 원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들어온 20억 원이 이익을 늘린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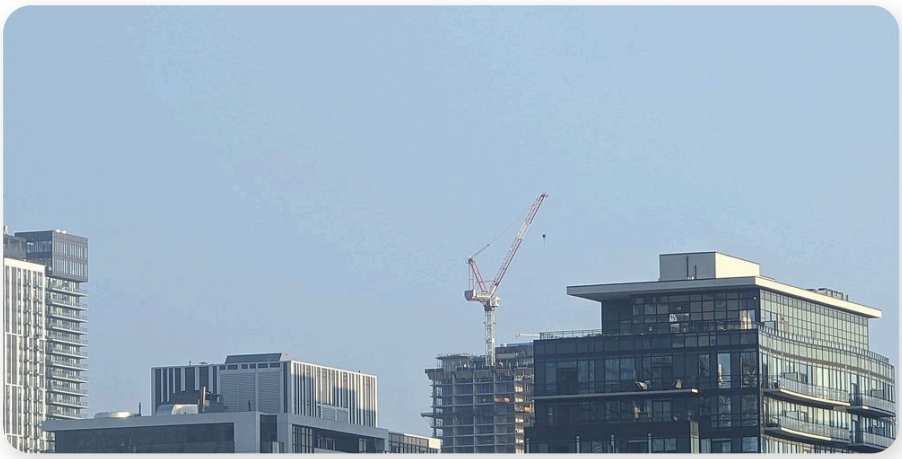


사진: 고층 건물 사이에서 올라가는 타워크레인, Geo Swan, Wikimedia Commons.

J가 20억 원으로 새 공장을 지어 순이익이 13억 원으로 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13억 원을 125만 주로 나누면 주당순이익은 1,040원입니다. 증자 전 1,000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반대로 20억 원을 빚 갚는 데 썼다면 어떨까요? 이자가 한 해 1억 원 줄어 순이익이 11억 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려고 세금은 뺐습니다. 이때 주당순이익은 880원으로 증자 전보다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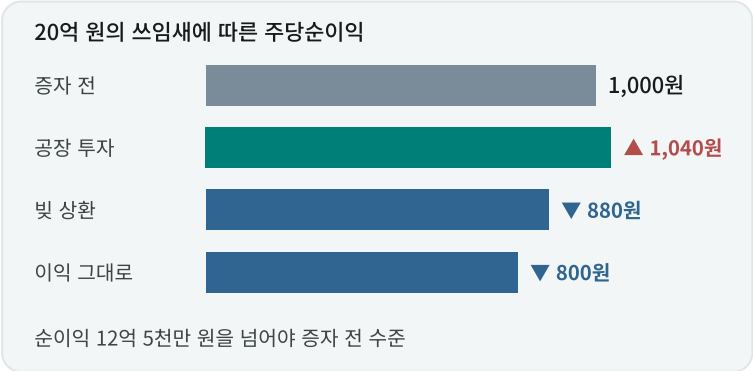


그림 4. 가상의 회사 J(증자 후 125만 주, 순이익은 공장 투자 13억 원·빚 상환 11억 원·그대로 10억 원 가정, 세금은 뺌). 막대 길이는 주당순이익에 비례함.

기준선은 간단합니다. 주식이 25% 늘었으니 순이익도 25% 넘게 늘어야 한 주의 몫이 지켜집니다. J라면 순이익이 12억 5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볼 때는 자금 사용 목적부터 확인합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주요사항보고서)에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처럼 돈을 어디에 쓸지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익을 키울 투자인지, 버티기 위한 돈인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이 갈립니다.

05

기존 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주주배정 방식이라면 기존 주주에게 새 주식을 살 권리가 먼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J의 배정 비율은 한 주당 0.25주입니다. 1만 주를 가진 주주는 2,500주를 8,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사진: 높이가 조금씩 다른 동전 더미, Au Kirk, Flickr.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00만 원을 내고 2,500주를 삽니다. 주식은 1만 2,500주가 되고 지분율 1%가 그대로 지켜집니다. 둘째, 신주인수권을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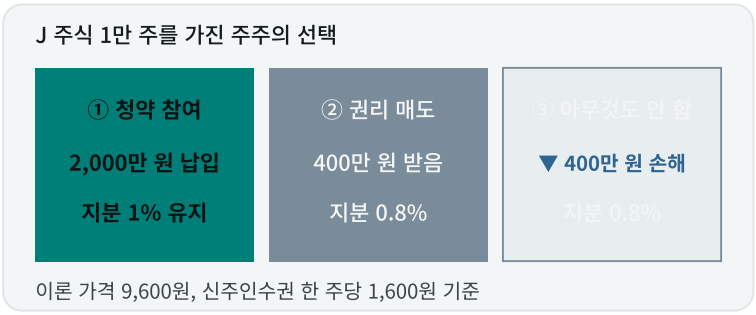


그림 5. 가상의 회사 J의 주주배정 예시. 신주인수권 가격은 이론값이며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를 수 있음.

이론상 신주인수권 한 주의 값은 이론 가격 9,600원에서 발행가 8,000원을 뺀 1,600원입니다. 2,500주 몫이면 40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만 주의 가치가 1억 원에서 9,600만 원으로 줄어 400만 원을 그대로 잃습니다. 권리를 팔면 그 400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처럼 주주배정 증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해만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 이론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기간과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은 공시와 증권사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

유상증자 공시를 봤을 때 던질 세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에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식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싸게 파는가?"**
   → 증자 비율과 할인율이 클수록 한 주의 몫과 이론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2. **"들어온 돈을 어디에 쓰는가?"**
   → 늘어난 주식 수 이상으로 이익을 키울 계획인지가 핵심입니다.

3.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 주주배정이라면 청약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팔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주식이 늘어 몫이 묽어지고, 새 주식이 싸게 섞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늘어난 주식 수 이상으로 이익을 키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공시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증자 비율과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dart.fss.or.kr (유상증자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조달 목적, 증권신고서 확인)
- 권리락 기준 주가 산식과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기간: 한국거래소 규정 [확인 필요: 규정 원문과 기준일]
- 글에 쓴 회사 J와 모든 숫자는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기업 자료가 아님. 계산을 쉽게 하려고 세금은 뺌

분류·태그 공시·이벤트 #공시 #유상증자 #주가 해석 #주주가치 #할인율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5-auto-0626.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